

서울중부지방회, 장학위원회 설립 후 첫 장학금 수여식 거행

자발적 헌신으로 모인 기금,
다음 세대 세우는
'사랑의 마중물' 되다

서울중부지방회(회장 이규명 목사)는 지난 7월 14일(화) 오전 10시 30분 구로중앙교회에서 7월 정기 월례회 및 기도회를 열고, 제38회기 역점 사업으로 출범한 장학위원회의 첫 장학금 수여식을 은혜 가운데 거행했다.

이번 장학위원회는 단순한 지원 제도를 넘어, 교단의 미래를 이끌어 갈 다음 세대를 격려하고 영적 인재로 든든히 세우기 위해 목회자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장학 기금 전액이 위원들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월납 및 연납 후원금으로 조성되어 그 의미를 더욱 깊게 한다. 척박한 목회 현장에서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걷고 있는 동역자들을 위로하고, 그 자녀들이 영적 리더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십시일반의 사랑이 담긴 마중물이 된 것이다.

초대 장학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모금과 지원 사역을 총괄하고 있는 노윤식 목사(주님앞에제일교회)와 위원회는 이러한 설립 취지에 맞춰 세부 지급 기준을 확립했다. 본 교단 신학대학원(M.Div) 및 성결신대원에 재학하는 담임목회자 자녀에게는 100만 원의 장학금을 1인 최대 2회까지 지급한다. 또한, 정규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 자녀에게는 입학 초기에 100만 원을 지급하고, 3학기 이상 진학시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지속적인 학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이 기준을 충족한 총 3명의 목회자 자녀가 첫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기쁨을 누렸다. 수혜자는 송유영(독일교회, 성결대학교 신학과·피아노 복수전공), 홍채경(주의빛교회, 가톨릭대학교 의류학과), 노종윤(주님앞에제일교회, 성결대학교 M.Div)이다.

앞서 드려진 1부 예배 및 기도회는 윤형석 목사(구로중앙교회)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홍용관 목사(주의빛교회)의 기도에 이어 이상화 목사(은양교회)가 '버림받지 않기 위하여'



(고전 9:27)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했으며, 김영배 목사(복있는교회), 이대은 목사(평화교회), 양지현 목사(우리사랑교회)가 각각 지방회, 총회, 국가를 위한 합심 기도를 인도했다.

2부 월례회 회무 처리 중에는 장학위원장 노윤식 목사가 학생들에게 직접 장학금을 전달하며 따뜻한 격려를 보냈다. 이어 월례회 말미에는 참석한 목회자들과 장학생 자녀들이 다 함께 서로를 축복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연합 기도를 드렸으며, 송력준 원로목사의 은혜로운 마무리 기도로 이날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

서울중부지방회는 "선배 목회자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내리사랑으로 맺은 이 뜻깊은 결실이 단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음 세대를 향한 따뜻한 격려가 매 회기 멈춤 없이 이어져, 동역자들의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우리 지방회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굳건히 뿌리내리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서울중부지방회주재기자 고명희 목사

제1회 서울북지방회장배 친선 탁구대회 개최 승패보다 서로 격려하고 교제하는 화합의 시간 가져



서울북지방회(회장 진영복 목사)는 지난 7월 7일 창동교회에서 월례회를 마친 뒤 교회 내 탁구장에서 제1회 서울북지방회장배 친선 탁구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서울북지방회 목회자들의 건강 증진과 상호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는 개인전인 단식과 감찰회 대항전인 복식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각 감찰회의 추천을 받은 13명의 목회자가 단식 토너먼트에 출전해 기량을 겨뤘으며, 복식에는 각 감찰회를 대표하는 6개 팀이 리그전 방식으로 경기를 펼쳐 수준 높은 승부를 선보였다. 경기 내내 각 감찰회 목회자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서 참가자들은 선의의 경쟁을 펼쳤으며, 승패를 떠나 서로를 격려하고 교제하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단식 경기에서는 이준성 목사(태양중앙교회)가 우승을 차지했으며, 김창열 목사(빛님교회)가 준우승, 이광구 목사(애양교회)가 3위에 올랐다. 복식 경기

에서는 꾸준한 연습으로 탄탄한 조직력을 보여 준 서부감찰회 A팀이 우승을 차지했고, 서부감찰회 B팀이 준우승을, 북부감찰회와 동부감찰회가 각각 3위와 4위를 기록했다. 이번 대회의 상금은 목회자들의 자발적인 찬조로 마련되어 입상자들에게 전달됐으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고급 디퓨저가 기념 선물로 증정되어 대회의 기쁨을 더했다. 특히 단식과 복식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서부감찰회는 시상 직후 상금의 일부를 다른 감찰회 소속 세 교회와 나누며 승리의 기쁨을 함께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다.

서울북지방회는 이번 친선 탁구대회를 통해 목회자들이 함께 땀 흘리며 우정을 나누고 하나됨을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류와 친선 행사를 통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지방회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서울북지방회주재기자 서계원 목사

약속이룸교회, 안수집사 임직감사예배

연합의 아름다움을 통한 놀라운 부흥 기대



고양지방회 약속이룸교회(송재상 목사)는 7월 5일(주일) 오후 3시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안수집사 임직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1부 감사예배는 송재상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서성용 목사(지방회부회장, 방주교회)의 기도, 김수진 목사(지방회서기, 예수본교회의 성경봉독)에 이어 강병구 목사(지방회장, 순전한교회)가 골로새서 2장 6~7절을 본분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제목으로, 교회와 임직 대상자에게 주님께 크게 향상 감사할 것을 전하며, 진심으로 축하했다.

2부 임직식은 임직자 호명과 서약, 김성철 목사(지방회부서기, 아름다운포도

원교회)의 임직자를 위한 기도, 그리고 안수위원들의 안수와 공포를 통하여 안수집사 1명을 새로운 직분자로 세웠다.

3부 축하와 권면 시간에는 박진영 목사(주능력교회)의 권면, 김현숙 목사의 축사, 그리고 김영국 목사(새에덴교회)의 격려사, 이어 임직 메달과 임직패 증정이 있었다.

새롭게 세워진 장영준 신임안수집사는 뜨거운 감동과 감사로 답사하였으며 모든 예식은 강병구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다음은 임직자 명단.
△안수집사: 장영준
고양지방회주재기자 김성철 목사

서울중부지방회, 연합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성료 “중심 보시는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서울중부지방회(회장 이규명 목사)는 지난 7월 19일(주일) 오후 5시 아름다운 본교회에서 '2026 연합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및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개최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연합여름성경학교는 지방회 소속 여러 지교회와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다음 세대를 영적 인재로 세우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강습회는 오는 8월 6일(목)부터 8일(토)까지 2박 3일간 삼일교회 수양관에서 열리는 본 캠프를 앞두고 진행되었다.

이날 모인 지교회의 교회학교 교사들과 목회자들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작은 소년 다윗을 주목하시고 기를 부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 성경학교에 참석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이루만저 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연합하여 기도했다.

이번 캠프의 주제는 “다윗”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이날 이예빈 전도사(은성교회)와 찬양율동팀의 인도로 활기차게 시작된 강습회는 학생부부장 김영배 목사(복있는교회)의 기도에 이어, 지방회장 이규명 목사(은성교회)가 '기도 외에는'(막 9:28-29)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규명 목사는 설교를 통해,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책임지는 우리 교사들에게 가장 절실한 무기는 기도이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들을 세우기야 한다"고 강조하며 헌신하는 교사들을

뜨겁게 격려했다.

말씀 선포 후에는 이상진 목사의 인도로 합심 기도회가 이어졌고, 기도회 이후 진행된 2부 순서에서는 본 캠프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박건호 목사의 교사 공과 교육이 진행됐다. 박건호 목사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삼상 16:7)는 핵심 말씀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지도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강습회의 모든 순서는 교사들의 사명을 굳건히 다지는 은혜로운 폐회 기도로 마무리되었다.

한편, 다가오는 2026 서울중부지방회 연합여름성경학교 본 캠프는 안양성결교회 박요진 목사의 뜨거운 저녁 집회를 비롯해, 벨렐교회 부목사 심보라 목사(벨렐성가족상담센터)의 특강, 유우디아의 성극 뮤지컬 등 다채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또한, 이예빈 전도사(은성교회)가 본 캠프의 주 찬양 인도자로 나서 아이들을 은혜의 자리로 이끌 계획이다.

지방회 산하 지교회들의 아름다운 연합과 교사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빛나면 이번 강습회가, 세상의 잿대를 넘어 다음 세대를 든든한 영적 리더로 세우는 거룩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중부지방회주재기자 고명희 목사

풍성한교회, 새성전 이전 감사예배

영종도에 세워진 새 처소, 헛되지 않은 수고의 열매



서울남지방회 풍성한교회(구자신 목사)는 지난 7월 19일(주일) 오후 인천 영종도 운서역 인근으로 이전한 새성전에서 영종포감찰회 주관으로 새성전 이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감찰회 서기 김성호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지방회 부회장 서경원 목사의 기도에서 이어 지방회장 박기홍 목사가 '헛되지 않은 수고'(고린도전서 15:58)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기홍 목사는 주의 일에 힘쓴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음을 강조하며, 새 처소에서 시작될 풍성한교회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축원했다.

이어 전 지방회장 양준기 목사(문래동교회)의 권면과 감찰장 강성범 목사(서울반석교회)의 축사가 있었으며, 전 총회장 나세웅 원로목사(신림동중앙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담임 구자신 목사는 "새성전 이전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며, 성전 이전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함께해 준 지방회와 감찰회, 그리고 은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영종도 지역을 향한 복음의 새로운 전진기지가 될 풍성한교회의 앞날을 축복하며, 풍성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서울남지방회주재기자 박요섭 목사

마포제일교회, 새 성전 건축 위한 기공예배 연면적 1,388.42 m² 시공은 신부종합건설이 맡아



서울지방회 마포제일교회가 이규현 목사가 지난 7월 12일 마포구 공덕동에서 새성전 건축을 위한 기공예배를 드리고 건축공사의 시작을 알렸다. 마포제일교회는 교회가 속한 공덕동 일대가 재개발 사업지역으로 지정되며 이와함께 새성전 건축을 준비해왔다. 건축규모는 대지 면적 약 661㎡, 연면적 1,388.42㎡이며 지하 2층, 지상 8층이다. 시공은 신부종합건설(주)이 맡았다.

예배는 1부 기공예배와 2부 기공예식으로 진행됐다.이규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김진영 장모의 기도후 총회장 이종만 목사가 '이 성전의 영광이 크리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총회장은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다. 앞으로 마포제일교회가 성도들로 가득 차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고, 이곳에

불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바란다"고 설교했다. 전 총회장 윤기순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진행된 기공예식은 이영석 장모의 건축 경과보고와 서울지방회회장 진순천 목사의 환영사와 은급재단이사장 김진일 목사, 부흥사회 총재 이상분 목사, 성결신학원 이사장 직무대행 김성진 목사, 성결대학교총동문회장 이정길 목사, 부흥회장 황제돈 장모, 교단총무 권순달 목사가 각각 축사와 권면의 순서를 가졌다.

이규현 목사는 건축가공선언을 통해 "이 성전이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위한 거룩한 처소가 되고, 다음세대가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는 축복의 터전이 되기를 소망한다"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믿음과 순종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마조교회, 창립 54주년 감사예배 및 주민초청잔치 지역주민과 함께 54년 은혜 되새기며 지역 복음화 다짐



강서지방회 마조교회(이광열 목사)가 창립 54주년을 맞이하였다. 민통선 이북이라는 지리적 환경을 극복하고 부흥의 길을 열어 가는 교회로 흔들림 없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매년 창립주일에는 지역주민을 초청하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왔다.

지난 7월 12일(주일) 오전 11시 감사예배에 성도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석해 성전을 가득 메우며 창립 54주년의 기쁨을 나눴다.이날 이광열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복있는 자

입니다'라는제목의 설교에서 지난 54년간 배운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창립 주역 오재호 은퇴장로의 기도, 조장현 집사, 강수아 찬양사역자의 특별 찬양과 세대 간의 어울림 찬양단의 찬양과 백옥선 권사의 54년의 은혜 간증과 변습집사의 소망의 시 낭송으로 이어졌으며, 부목사 황순배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성전을 가득 채운 예배는 미래에 대한 마조교회의 부흥을 기대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마조교회 총여전도회장 박경란 권사는 "창립감사예배를참가며 큰 은혜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더욱 낮은 자세로 교회와 지역을 섬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마조교회 제공)